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32호

### **스포츠온북스**

**스포츠를 읽으면 생각이 건강해진다**

임한얼 서울스포츠

### **“거절하면 욕설...부모가 신고”**

**졸남기 국대 여중생 “코치가 1년 넘게 성폭행...거절하면 폭언”**

나예은 아시아경제 기자

###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적 지상주의가 품은 스포츠 폭력**

김교성 매일신문 디지털 논설위원

**교육부·문체부, ‘학생선수 인권보호’ 인권위 권고 수용**

임성호 연합뉴스 기자

**즐겁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니다, 스포츠 인권**

김도균 경기신문 기자

### **도쿄패럴림픽**

**선수 대신 장애 부각한 도쿄패럴림픽 보도...낡은 ‘극복 서사’ 여전**

정세인 PD저널 기자

### **체육시민연대 Cnet포럼 안내**

2021년 9월 24일(금) 오후 4시

주제 : 팬데믹 체육인 고용실태와 문제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스포츠는  
인권이다

# 체육시민연대

## CNet 포럼

주제

### 팬데믹 체육인 고용실태와 문제점

○ 일시 : 9/24(금), 오후 4시 ~

○ 방식 : 실시간 온라인(ZOOM, YouTube)

◇ 사회

홍덕기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발제

정현우 | 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 토론

여준형 |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김희진 |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양민석 |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문의 :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 스포츠를 읽으면 생각이 건강해진다

## 스포츠는 대중이 사랑하는 것이다

어느 책 서문에 이런 말이 있다. “스포츠는 대중이 사랑하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주권)은 ‘대중’(국민)에게 있고,

‘사랑’이란 목숨도 내놓게 하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 아닌가.

최고 권력이 가진 힘의 원천이 바로 스포츠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스포츠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곳에 뻗어 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할 것 없이 어디서든 스포츠를 마주하게 된다.

영역이 다양해진 만큼 스포츠를 즐기는 모양도 다양해졌다.

이 중에 나는 스포츠 읽기를 좋아한다. 스포츠는 건강을 위해 하거나, 유희를 위해 하는데,

스포츠 읽기도 마찬가지다. 스포츠를 읽으면 마음이 즐겁고 생각이 건강해진다.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라〉(천정환 저, 푸른역사, 2010) 서문에서

글·임한얼

##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독서가 재미있다

교육학자 화이트 헤드는 학습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었다. ‘낭만의 단계’-‘정밀화의 단계’-‘일반화의 단계’, 당연히 체육교육에서도 이 이론은 곧잘 사용된다.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 처음 접할 때 낭만을 갖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스노보드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보통 무턱대고 친구 따라 처음 타던 날 엉덩방아 200번 썩은 찢은 사람들이다. 스노보드를 배운다는 것은 설산의 절경 한가운데서 찬바람을 가르며 역설적으로 포근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말이다(주관적 체험). 여하튼, 독서도 똑같다. 책에는 흥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재미없는 책만 읽은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당신이 지나치게 겸손한 것일 수도 있다. 당신 탓이 아니라 책 탓이다.

## 어떤 스포츠 에세이는 글에서 맛이 난다

축구를 좋아한다면, 또 더욱이 여성이라면 당신을 읽는 스포츠의 낭만에 빠지게 해줄 딱 좋은 책이 있다. 바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김혼비 저, 민음사, 2018)다.

나도 볼 좀 찻다면 찻는데 축구라는 세계적 스포츠의 체험을 이렇게 깊은 통찰로 서술한 책은 처음이었다. 내 평가가 극단적으로 좋은 이유는 책을 읽는 내내 숨 쉴 새도 없이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 계속

이 책은 저자 김훈비가 남자의 전유물이던 축구라는 스포츠에 진입하면서 겪은 외적 경험과 내적 체험의 이야기다. 아무리 조기축구 경력이 수십 년이라지만 국가대표 출신 여자에게 기어코 지적질을 하고 마는 남성의 어떤 설명 욕구 같은 것이 빚어낸 에피소드처럼 흥미로운 경험들과, “사는 옷과 신발이 달라지고, 몸의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축구의 경험이 쌓이는 만큼 몸과 마음의 어떤 감각들이 깨어나는 걸 느끼며, 축구가 너무 재미있어서 어쩔 줄 모르겠는(본문에서)” 생생한 체험들로 가득 차 있다.

## 어떤 스포츠 소설은 묵직하게 질문한다

나도 가끔은 착한 짓을 한다. 하지만 나의 착한 짓은 선의 추구가 아니다. 멋의 추구다. 나는 어떤 행동이 멋있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수용한다. 내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 것도, 기회가 생기면 기부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동조차 다 멋있다고 생각해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겉멋 든 사람이지만,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내 삶의 윤리학은 칸트의 정언명령보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욕망)가 더 잘 설명한다. 선을 추구하겠다는 이성의 판단이기보다는, 멋있고 싶은 욕망의 추동이니까. 인간은 욕망이 구체화된 존재라나. 내가 조금이나마 문학을 읽게 된 것도 결국 문학의 ‘멋’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신형철 문학평론가는 안 그래도 멋있는 문학을 더 멋있게 설명했다.

“나는 늘 몰락한 자들에게 매료되곤 했다. 생의 어느 고비에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참혹하게 아름다웠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전부인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하나를 제외한 전부를 포기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텅 빈 채로 가득 차 있었고 몰락 이후 그들의 표정은 숭고했다. 나를 뒤흔드는 작품들은 절정의 순간에 바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 <몰락의 에티카>(신형철 저, 문학동네, 2008) 서문에서

“참혹하게 아름다운 자들”, “전부인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하나를 제외한 전부를 포기한 자들”, <베어타운>(프레드릭 베크만 저, 다산책방, 2018)과 <우리와 당신들>(프레드릭 베크만 저, 다산책방, 2019), 두 책이 바로 그런 자들의 이야기다.

북유럽의 시골 동네를 배경으로, 아이스하키를 소재로 쓴 이 소설은 신형철 평론가를 매혹시킨 그 문학의 질감을 가지고 있다.

두꺼운 책을 한 권 읽어보고 싶다면 <베어타운>을 읽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와 당신들>까지 두 권을 읽게 된다. 그리고 몰락을 선택한 자들의 참혹하게 아름답고 숭고한 표정이 당신에게 질문할 것이다. 어떤 스포츠가 진실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스포츠인가.

## 어떤 스포츠 소설은 따뜻하게 질문한다

무더운 여름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다. 혐오의 시대란 말이 여기저기서 들릴 만큼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모양의 요즘이다. 심지어 쿨(잘난척)한 것이 보편의 멋이 되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데워야 한다. 아니면 좀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스포츠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수영하는 여자들>(리피 페이지 저, 구픽, 2018)이 바로 그런 책이다. 읽는 우리 마음도 데워주고 냉정한 승부의 세계로만 알았던 스포츠가 따뜻하고 포근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수영에 대한 예찬으로 가득하지만 다른 스포츠 문학이나 영화에서는 반드시 있는, 그것도 꼭 절정의 순간을 만드는 시합 장면 같은 것은 없다. 대신 수영이라는 스포츠가 한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와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스포츠는 보통 훈련을 수반하는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케이트와 로즈마리(이 소설의 두 주인공)에게 수영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에게 수영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따뜻한 엄마의 품 같은 존재다.

여기서 우리는 ‘수영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더 멋있는 자세로 더 빠르게 하는 수영과, 엉성한 자세로 위로받는 수영 중 어떤 것이 더 수준 높은 수영일까? 누가 더 수영이라는 스포츠의 진면모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



##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를 읽어야 한다

“스포츠는 대중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뒤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도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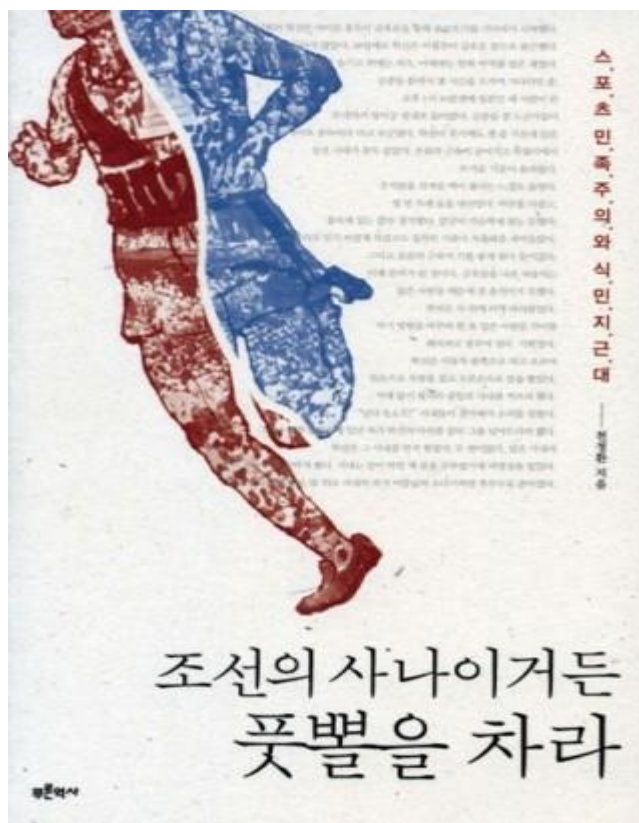
목적의 수단화는 언제나 큰 상실감을 준다. 사람이 도구가 될 때, 사랑이 수단이 될 때 고통은 얼마나 참혹한가.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지배계급의 통제 수단이 될 때, 국가주의의 선전 도구가 될 때, 자본주의의 돈벌이가 될 때, 우리는 참혹한 고통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실은 수도 없이 마주해왔지. 누가 최속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누가 운동부를 (성)폭력의 장으로 만들었나. 누가 올림픽 선수들을 약쟁이로 만들었나. 누가 프로선수들을 도박꾼으로 만들었나.

스포츠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스포츠를 읽으면 생각이 건강해진다. 생각이 건강해지면 스포츠를 이용해먹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분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따금씩 온갖 번뇌를 내려놓고 생각 없이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면 스포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를 읽어야 한다.

글을 쓴 **임한얼**은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존 우든의 철학과 스포츠가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마르크 페렐망의 신념 사이에서 스포츠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스포츠평론가가 되는 게 꿈이다. 현재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에서 가방끈의 마지막 매듭을 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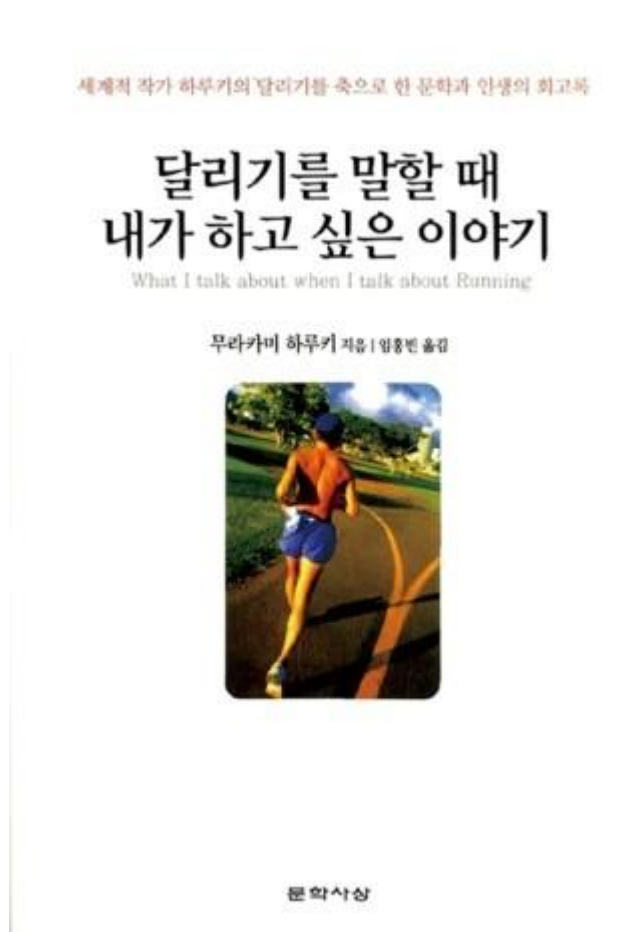
1.<유럽 명문 클럽의 뼈 때리는 축구 철학>



2.<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라>



3.<마인드 스포츠>



4.<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5.<잘 넘어지는 연습>



6.<어퍼컷 좀 날려도 되겠습니까>

# 줄넘기 국대 여중생

## “코치가 1년 넘게 성폭행...거절하면 폭언”

아시아경제

줄넘기 국가대표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대학생 코치로부터 1년 넘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코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A(16)양은 지난달 28일 코치 B(26)씨에게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월 한 대학에서 훈련하게 된 A양은 "B씨가 자신의 연립주택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자며 합숙을 권유했다"고 주장했고, A양의 부모에게는 "다른 선수들도 함께 있으니 걱정 말라"며 안심을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A양은 합숙이 시작된 지 몇달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자필 진술서에서 "운동 중간에 (코치가) 계속 '하자'라고 (말했고) 제가 알겠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운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자고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듣기 힘든 욕설이나 막말을 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에게 하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제 꿈인 줄넘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코치의 폭언과 성폭행을 견뎌야 했고, 싫은 티를 낼 수 없었다"며 "짜증 또는 화를 내서 무섭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을 꼭 더 많이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B코치는 A양에게 "미친X", "개또XX", "똥녀" 등 비하 발언과 욕설을 했고, A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잘해주니까 호구로 본다"며 A양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코치는 훈련생 중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줄곧 추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줄넘기는 다른 종목처럼 엘리트 선수들을 키울 수 있는 실업팀(선수들이 직장 소속으로 근무하며 동시에 운동을 하는 스포츠 단체)이 없기에, 주로 생활체육대회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대회에 출전한다.

청소년 인권단체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는 "동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인 코치와 미성년 선수 사이 위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치는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A양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조만간 코치를 소환할 예정이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거꾸로읽는스포츠]

## 뿌리 깊은 성적 지상주의가 품은 스포츠 폭력



김교성 디지털논설위원

초등학교 다닐 때 체격이 좋거나 달리기를 잘했다면 교기로 지정된 운동부 가입을 한 번쯤 권유받았을 것이다. 엘리트 체육으로 불리는 운동부 가입은 자신 의지보다는 부모, 체육 교사·코치의 권유로 대부분 이뤄진다.

이렇게 시작한 운동부 생활은 훈련과 대회 출전을 위해 '합숙'이란 단체 생활로 이어지기에 군대와 같은 선후배 위계질서가 있는 규율 문화를 강조한다. 운동부는 기존의 운영 시스템적으로 폭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내 체육계에서 당연시하는 '성적 지상주의'는 운동부의 폭력성을 부채질했다. 지도자와 고학년 선임 선수들의 이해관계는 성적을 내야 한다는 것에서 잘 맞아떨어졌다. 교사나 지도자는 승진 등 더 나은 대우를 위해 선수들을 다그쳐 성적 올리기에 골몰하고, 고학력 선수들은 진학을 위해 후배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개인적인 목적 달성이 분명하지만, 팀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항상 앞선다.

초등학교 다닐 때 체격이 좋거나 달리기를 잘했다면 교기로 지정된 운동부 가입을 한 번쯤 권유받았을 것이다. 엘리트 체육으로 불리는 운동부 가입은 자신 의지보다는 부모, 체육 교사·코치의 권유로 대부분 이뤄진다.

이렇게 시작한 운동부 생활은 훈련과 대회 출전을 위해 '합숙'이란 단체 생활로 이어지기에 군대와 같은 선후배 위계질서가 있는 규율 문화를 강조한다. 운동부는 기존의 운영 시스템적으로 폭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내 체육계에서 당연시하는 '성적 지상주의'는 운동부의 폭력성을 부채질했다. 지도자와 고학년 선임 선수들의 이해관계는 성적을 내야 한다는 것에서 잘 맞아떨어졌다. 교사나 지도자는 승진 등 더 나은 대우를 위해 선수들을 다그쳐 성적 올리기에 골몰하고, 고학력 선수들은 진학을 위해 후배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개인적인 목적 달성이 분명하지만, 팀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항상 앞선다.

경상북도 체육계에서 유독 스포츠 폭력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체육회가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폭력 사태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경북 예천중학교 양궁부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태가 겹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4일 예천중 양궁부에서 선배가 쏜 화살에 후배 학생이 다친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가해 학생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잇따르고, 해당 운동부 코치의 상습 폭행 등에 대한 증언까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활을 쏜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모두 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활로 인해 상처를 입은 학생을 비롯해 양궁부 다른 학생 4명, 1년 전 양궁을 그만둔 학생, 초등부 당시 폭행을 당한 뒤 전학한 학생 등이다.

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7일 가해 학생에 대해 선도조치 처분을 내렸지만, 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 학생들이 추가로 나오며 따라 학교폭력심의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처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다음 장 계속



예천중 양궁부에서 벌어진 화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상처 모습(우측 상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교육 당국 조사에서는 해당 양궁부 코치에게 폭언 등을 당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교육 당국은 추가 피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해당 코치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예천중은 '2020 도쿄 올림픽' 양궁 2관왕 김제덕 선수의 모교라 이번 사태는 더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학교 등 예천 지역 사회에서는 김제덕 선수의 금메달 획득으로 조성된 올림픽 축제 분위기와 양궁부 해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예천중 양궁부 사태는 학부모 반발로 알려졌지만 사실 운동부에서 빚어지는 폭력 행위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다. 뉴스가 되지 않고 합의 명목으로 묻힌 사건은 숭하다. 스포츠 스타를 꿈꾸며 운동부에 들어갔다가 폭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은 학생들도 많다.

성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따른 지도자와 선배 학생의 폭언을 포함한 폭력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단체 생활에 따른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 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운동부 관계자들은 이를 묵인한다.

경북체육회와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을 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도자 포상제가 운동부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게 아닌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지도자 포상제는 경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각종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경북의 지도자들이 받는 포상금은 다른 시도에 비해 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지도자들은 체전에서 선수들이 수확한 메달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1천만원 이상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연봉 등 대우가 열악한 지도자들은 포상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훈련과 선수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된다. 일부의 잘못된 사례이지만 최속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지도자와 선배 선수의 폭력 행위를 들여다보면 포상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제덕 선수와 같은 올림픽 스타가 훌륭한 능력을 갖춘 지도자 덕분에 탄생한 점을 고려하면 지도자 포상제는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더는 스포츠 폭력 사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학교 운동부가 줄어들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늘어나는 만큼 스포츠 폭력 사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교육부·문체부, ‘학생선수 인권보호’ 인권위 권고 수용

YONHAP NEWS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각 시도교육청 등 20개 기관이 초·중고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를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각 기관이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및 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이행할 예정임을 통지해 왔다"며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교육부 등에 학생 선수 관련 ▲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 인권침해 예방 ▲ 폭력·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16개 사항을 권고했다. 2019년 실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가 권고의 바탕이 됐다.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학교장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행령도 개정해 운동부 지도자 임용 시 훈련의 질과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합숙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는 체육 지도자 결격 사유에 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범죄 등을 추가하는 한편 '체육 지도자 자격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교육청도 학생선수 대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인권위는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도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유도회 등 주요 피권고기관들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올해 3월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해 ▲ 스포츠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 ▲ 유도 종목 특화 스포츠 인권교육 운영 ▲ 종목 특성을 반영한 훈련지침 마련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sh@yna.co.kr, chic@yna.co.kr



# 즐겁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니다,

## 스포츠 인권

2002년 월드컵 4강, 2020 도쿄올림픽 16위 등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하지만 여전히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사건 등 인권침해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세계무대에서의 국위선양 혹은 승리를 통해 결과만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다수의 인권침해가 은폐되고 왜곡돼 온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성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화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심석희 선수와 故 최숙현 선수부터 올해 초 불거진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까지 체육계의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은 꾸준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이런 폭력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이자, 스포츠 인권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스포츠 인권이란 무엇인가. 스포츠 인권은 스포츠 활동에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스포츠 활동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지난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또한 2020년 8월 5일, 2021년 2월 19일과 6월 9일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며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는 스포츠 인권 침해 및 비리 조사 처리를 담당하는 독립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선행돼야 할 점은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김대희 교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며 스포츠가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이용돼, 법과 정책의 방향이 엘리트 선수들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그러다 보니 과정보다 결과가 우선시 되는 문화가 만연했다”면서 “국제대회 메달과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구조 상 여러 인권침해 사례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계는 그동안 인권침해에 대해 쉬쉬했었고, 지도자나 선수, 학부모들이 인식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점은 당연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인권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스포츠인권헌장을 발표했으며, 지도자 평가체계 수정과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김 교수는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징계와 처벌이 주를 이뤘다. 물론 교육이나 법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면서 “신고자가 보호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근본적 이유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사회에 있어 스포츠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자신들만의 스포츠 스타를 보며 꿈을 키우고, 그들은 또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해 홀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감당하고, 심각한 경우 운동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현실과 폭력문화 속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폭력과 성폭력,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스포츠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선 선수 본인과 가정, 학교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하는 이가 즐거워하는 스포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스포츠 선수들의 성과는 스스로 견뎌낸 인내의 결과이지, 부당한 고통의 결과가 아니어야 한다. ‘즐겁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 선수 대신 장애 부각한 도쿄패럴림픽 보도... 낡은 '극복 서사' 여전

'백색증도 시각장애도 뛰어넘은', '정말 힘든 고비를 이겨낸 선수들' 2020 도쿄패럴림픽 출전 선수들의 활약을 전하고 있는 보도와 중계에서 낡은 장애 극복 서사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오는 5일 폐막하는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는 총 86명(14개 종목). 도쿄올림픽 기간에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하고 온종일 경기 중계를 편성했던 방송사와 선수들의 얼굴로 1면을 장식했던 신문에서 패럴림픽 선수들의 경기 소식은 일부러 찾아봐야 할 정도로 적다.

언론이 패럴림픽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 것도 아쉽지만, 이마저도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두드러진다. 장애인 스포츠 경기 보도는 비장애인 경기와 다르게 성과보다 장애를 부각하는데, 패럴림픽 보도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가 패럴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도한 패럴림픽 관련 기사 16건 가운데 6건은 장애를 강조한 제목이 달렸다. <팔이 없으면 입으로... 이것이 패럴림픽>, <다리를 못 써도... 우리의 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발로 공 띄워 서브... 양팔 없어 라켓물고 스매시>, <세계 유일 손발 없는 펜싱선수, 패럴림픽 2 覇> 등의 제목은 선수의 이름보다 장애에 눈길이 머물게 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 많은 선수들이 이름을 알린 것과 달리 폐막 사흘 전까지 패럴림픽 선수 한 명의 이름도 떠올리기 어려운 건 이런 보도의 영향이 크다.

<조선일보>는 도쿄패럴림픽 트리아슬론 금메달을 딴 스페인 로드리게스 선수를 조명한 <백색증도 시각장애도 뛰어넘은 鐵의 여인>에서 "스페인 여의사 로드리게스, 백색증 안고 태어나 멜라닌 색소 결핍으로 신체 대부분이 하얗다. 이 유전 질환의 영향으로 양 눈의 시력은 5~7% 정도만 남았다"고 로드리게스를 소개했다.

장애를 극복한 선수와 가족들의 서사는 패럴림픽 보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겨레>는 탁구 단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서수연 선수의 경기 소식을 전한 <서수연의 도전... 2개 대회 연속 '값진' 은메달> 기사를 "삶의 비극은 불시에 찾아온다. 서수연이 그랬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경향신문>은 8월 31일자 <청각장애를 넘어 '프로의 꿈'... 그의 곁엔 늘 아버지가 있었다>에서 야구선수 김동연의 아버지에 대해 "갓은 고초를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강조하며 "훈련하기 위해 출퇴근길을 함께했고, 일본에 갔을 때도 동행했다. 아들이 듣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자 아버지는 의사소통을 돕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기 중계에서도 선수들의 장애를 언급하는 해설은 단골로 등장했다.

다음 장 계속



# 백색증도 시각장애도 뛰어넘은 鐵의 여인

스페인 여자사 로드리게스, 도쿄패럴림픽 트라이애슬론 스타



후 3시까지 병원 근무를 한 다음 오후 6시부터 당에서 일을 출근했다. 브랜드를 사서 달리고, 물러 위에 설치한 사이클을 타고, 요양 대신과 세팅했다. 수영장이 폐쇄된 기간엔 바다에서 해운을 했다. 작년 가을 레저를 떠났고 나선 의사 업무 잠시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패럴림픽을 준비했다. 지난달엔 미국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하면서 "스포츠 덕분에 의사로 매일 일할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의사라는 직업은 건강과 스포츠의 중요성을 알게끔 해주었다고 한다. 로드리게스는 이번 도쿄 패럴림픽 육상에도 출전했다. 29일 오전 육상 1500m(시각장애) 예선 2조에서 남성 가이드 선수 페레이라와 나란히 뛰며 4분 53초38로 2위를 했다. 3위였다가 결승선을 70m를 남기고 스포츠에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다.

수사나 로드리게스(33)는 백색증(안과 질환)을 앓고 태어났다. 별다른 색소 결핍으로 인해 대부분이 라이다. 이 선형성 유전 질환의 영향으로 양 눈의 시력은 5~7% 정도만 남았다. 로드리게스는 20일 도쿄 패럴림픽 여자 트라이애슬론(오픈)에서 1000m(시각장애) 종목에 출전해 4분 53초38로 2위를 했다. 이번 대회에서 10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땀. '가이드'인 사라 로아와 호흡을 맞춰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를 1시간 07분 15초 만에 가장 먼저 마쳤다. 수영과 달리는 끈으로 가이드의 몸을 연결한 상태로, 사이클은 가이드가 앞 좌석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2인용 오픈 바이크를 타고 했다. 이들은 한 번도 선두를 빼지 않았다.

수사나 로드리게스(오픈)가 28일 도쿄 패럴림픽 여자 트라이애슬론 시각장애 종목에서 가이드인 사라 로아와 함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 의사인 로드리게스는 코로나 중증질환 치료사면서 이번 패럴림픽을 준비했다. 이번 대회에서 10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땀. '가이드'인 사라 로아와 호흡을 맞춰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를 1시간 07분 15초 만에 가장 먼저 마쳤다. 수영과 달리는 끈으로 가이드의 몸을 연결한 상태로, 사이클은 가이드가 앞 좌석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2인용 오픈 바이크를 타고 했다. 이들은 한 번도 선두를 빼지 않았다. 2008 베이징 패럴림픽 육상 출전권을 놓치지 트라이애슬론에 새롭게 도전했다. 패럴림픽 데뷔 무대였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도 모라레스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도쿄 패럴림픽 출전을 겨우 포기했다. 우선 상장애 이상이 발견돼 재검을 할 수 없었다. 격렬한 운동, 특히 수영을 할 때 위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로드리게스는 자신이 읽기는 힘들어

이 무렵 스페인의 코로나 사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갔다.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 직면한 로드리게스는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일에 매진하기로 마음먹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심하게 앓은 이틀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짜고 전액 상담을 했다. 작년 3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1년 앞장섰다는 발표가 나왔다. 다시 희망을 품은 로드리게스는 오전 8시부터 오

다. 2008 베이징 패럴림픽 육상 출전권을 놓치지 트라이애슬론에 새롭게 도전했다. 패럴림픽 데뷔 무대였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도 모라레스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도쿄 패럴림픽 출전을 겨우 포기했다. 우선 상장애 이상이 발견돼 재검을 할 수 없었다. 격렬한 운동, 특히 수영을 할 때 위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로드리게스는 자신이 읽기는 힘들어

이 무렵 스페인의 코로나 사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갔다.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 직면한 로드리게스는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일에 매진하기로 마음먹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심하게 앓은 이틀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짜고 전액 상담을 했다. 작년 3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1년 앞장섰다는 발표가 나왔다. 다시 희망을 품은 로드리게스는 오전 8시부터 오

다. 2008 베이징 패럴림픽 육상 출전권을 놓치지 트라이애슬론에 새롭게 도전했다. 패럴림픽 데뷔 무대였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도 모라레스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도쿄 패럴림픽 출전을 겨우 포기했다. 우선 상장애 이상이 발견돼 재검을 할 수 없었다. 격렬한 운동, 특히 수영을 할 때 위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로드리게스는 자신이 읽기는 힘들어



전민재 선수가 출전한 도쿄패럴림픽 육상 여자 200m 결승 중계에서는 “네, 그런(뇌병변) 장애를 딛고 정말 네 번째 패럴림픽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했다.

휠체어 농구 남자 예선 A조 경기에서는 SBS 캐스터가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를 제가 처음에 영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이미 정말 힘든 고비를 이겨낸 선수들이거든요”라고 말하자 임찬규 해설위원(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장애를 보시지 마시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봄으로 인해서 이 패럴림픽의 의미가 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라고 당부하는 모습도 전파를 탔다.

MBC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는 패럴림픽 탁구 경기 영상에 <한쪽 팔다리가 마비돼도... 양쪽 팔이 없어도... 패럴림픽 감동의 탁구 명승부!!!>라는 제목을 달았다. 박홍규 선수 입장 화면에는 “휠체어를 타고 입장한 박홍규 선수, 16년 전 사고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됐다”라는 자막을, 상대 이집트 선수 소개 화면엔 “양팔이 없다”라는 자막을 강조해 붙였다.

경기 장면에는 '심지어 백스핀도 가능하다!', '감각을 잃어버린 팔로 스매시를 꽃아 넣어',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는 혼신의 랠리' 등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바라본 시각의 설명이 줄줄이 이어졌다.

모두 장애인 스포츠 중계·보도에서 지양해야 하는 태도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당시 10대 일간지를 모니터링한 <모니터링 리포트>에는 스포츠 보도에서 피해야 할 다섯 가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장애인을 ‘인간 승리의 드라마’ 혹은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 △‘소아마비를 딛고’처럼 ‘장애 극복’을 강조하는 경우 △신체 손상을 상세하게 부각하거나 장애와 질병을 동일시하는 경우 △장애를 무기력함, 불행, 절망, 수치 등으로 묘사 △장애인 가족(특히 배우자와 어머니)을 죄인 또는 영웅으로 묘사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도쿄패럴림픽 보도를 보면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보도에서 지적받은 문제가 되풀이된 셈이다.

김성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은 “장애를 인정하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장애인 정책의 최고 목표”라면서 “언론이 장애인 선수를 다른 존재로 보도하거나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 극복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극복할 의지가 없거나 뒤쳐진 존재가 된다. 장애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팩트체크] 5년간 운동부 205개 해체... '체육 명문' 이젠 옛말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9043>

신치용 선수총장 "선수에게 훈련을 안 시키는 것이 인권침해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31/109016837/1>

뇌물·약물로 얼룩진 IOC 쇠신한 '미스터 클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7105&code=12160000&cp=nv>

[도쿄패럴림픽 결산]정진완 회장"국대 훈련시스템 전면수정,스포츠과학 지원 절실"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9060100040300002442&servicedate=20210905>

교실 속 운동장..가상현실 스포츠 인기

[https://www.ytn.co.kr/\\_ln/0115\\_202109050151424587](https://www.ytn.co.kr/_ln/0115_202109050151424587)

걷기 이어 자전거가 끈다 올해 핫 생활스포츠는 '자전거' 이유는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109031052003&sec\\_id=564001&pt=nv](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109031052003&sec_id=564001&pt=nv)

인천시, '인천FC 축구전용구장'에 스포츠 마케팅 접목...새로운 공간으로 재 창출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5102316915>

[With 코로나 ] ① 코로나19로 변화된 스포츠, 한계 극복해야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65543>

대중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선 승마 스포츠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61164?ref=naver>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